



《인투 더 리듬: 스코어로부터 접촉지대로》 워크숍 주간 리뷰 프로그램 〈발자국〉

흙과 흙¹

김해수

실은
아이는
화장실에서
옷을
다 벗고
피부도 벗으려다가
그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걸
매번 깨닫고
변기에
쪼그려 앉아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싸기 위해
힘을 주곤 했다

식은땀만 흘렀다²

아이는 옷을 입기 싫다. 아이는 바깥에서 싫은 채로 있고 싶다. 아이와 유사한 지겨움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잠가야만 나갈 수 있다. 아이는 메워질수록 몸이 들어나는 경험을 맞닥뜨린다. 그것을 끄르려는 아이의 손은 위반으로만 여겨진다. 이 저지는 아이가 새삼스러운 분리의 욕망을 일으키도록 한다. 아이는 자신을 ‘배설’하려 한다. 늘 닫히던 몸을 활짝 열어서 곳곳에 흘리고 싶어 한다. 「옷 입기 싫은 아이」는 고유성을 여미는 장소를 둘러본다.

¹ 전자의 흙은 파인 곳을, 후자의 흙은 집을 일컫는다.

² 차도하, 「옷 입기 싫은 아이」, 『미래의 손』(서울, 봄날의책, 2024), 74.

아이는 입을 행위에 앞서 “이토록 크게” 운다. 아무리 닦아도 그쳐도 무관하게 가빠지는 울음이 있다. 그것을 아는 부모는 아이를 백화점에 데려간다. 지금에 ‘알맞은’ 의류를 바라보던 아이는 “커다랗고 기쁜 눈을 가진 캐릭터”가 박힌 티셔츠를 가리킨다. 부모는 즉시 구매한다. 아이는 같은 얼굴을 몇 벌 얻는다. “커다랗고 기쁜 눈”은, 당연히 아이가 아닌 부모에게 달린다. 아이는 새 옷을 입고 어린이집에 간다. 친구들은 아이에게 매달린 얼굴을 칭찬한다. 아이는 화장실에 간다. “기쁜 눈”에 서슴없을 수 있는 곳. “다 벗고 피부도 벗으려다 가”라는 대목처럼, 아이는 자신에게 생겨나는 신체적인 감응—어긋남과 만족—을 성실하게 알아간다. 이러한 일과는 선생님의 의해 “오줌을 참기 힘든 모양”이라고 쉽게 짐작된다. 위 시는 동질성에 한해 유대를 잇는 사람들을 본다. 달아준 것을 따뜻함으로 생각할 사람들을 바라본다. 아이에게는 뭉쳐진 싫음을 같이 세어줄 사람이 없다. 아이는 의복을 강제당하면서 알았을 테다. 몸을 가려야만 유지되는 부드러움에 대해서. 시는 아이가 원하는 실내를 들으면서 끝난다. 선생님이 아이의 정체성을 “적응을 못”한 미진함으로 여길 때, 아이는 친구들과 할 “놀이”를 상상한다. 대개 가족을 재현하는 “소꿉놀이에서 마네킹 역할을 맡”고자 한다. 의류 매장에서 마네킹에게 옷을 입히거나 벗기는 과정은 통틀어 하나의 안내가 된다. 아이는 흥가분한 마네킹을 원한다. 놀이라는 일시적인 만남은, 역할을 바꿔 끼우는 것에 있어 자유롭다. 아이는 기존의 장소와 몸을 잠시나마 도려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을 조금 견뎌”볼 기회는 늘어나야 한다. ‘되기’ 앞에 이것저것 붙여볼 수 있는 곳. 경로에서 어긋나길 유도하는 곳. 본고는 이와 같은 장소성이 나타나는 워크숍을 바탕으로, 신체끼리의 연계를 통해 생겨나는 차이—공정을 본다. 이때 겪게 될 “접촉은 마냥 따뜻”하지 않으며 “때로는 다른 몸의 무게를 견디고 감당해야만” 한다.³ 다만, “본보기가 되는 ‘하나의 몸’”을 제하는 상황에서 알게 되는 고저 없음은 필요하다.⁴

손윤원×레지스터 코리아의 사운드 퍼포먼스 〈흐르는 몸〉은 부딪힘을 가르지 않고 같이 두르도록 한다. 〈흐르는 몸〉의 배경이 되는 〈음표〉에는 집의 바닥재인 PVC 장판이 쓰였다. 방의 기시감을 주는, 작은 사각의 바닥들은 반듯이 붙어있지 않다. 안정적인 도형이 될 무렵, 그것과 무관한 방향으로 간 바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닥은 들성들성 비어 있다. 하나 되기를 강요하지 않는 곳에서 생소함은 자연스러운 징조이다. 설치된 헤드셋에서는 아기의 음성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새, 젖히는 팔, 바퀴 달린 것을 끄는 와중 등 하루의 모음이 기도 하다. 소리는 몰려온다. 전자음악으로 재현한 일상은 각자에게 주저 없이 들이닥친다. 7분간의 사운드에는 손윤원의 돌봄 기억이 내재되어 있다. 돌봄은 문 뒤에서의 일로 여겨질 때가 많다. 돌봄 노동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도 적다. 여성은 젠더와 역할 고정성을 아울러 안락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부터 드물다. 일대기는 문 ‘안팎’을 오가며 기대는 행위로 시작하고 끝나지 않는가? 여기에 예외는 없다. 몸을 기반으로 한 여러 떠들썩함이 필

³ 라시내,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 이유』, 『릿터』 45호, 2023년 12월, 14.

⁴ 라시내, 같은 곳, 13.

요한 이유이다. 전희경은 “돌봄 혁명” 이후를 가능하며, 치매가 있는 “배회 노인”을 “산책 노인”으로 부르기 시작한 일본 이시가키 섬을 예시로 든다.⁵ 이는 다수와 다름없는 몸—기능이 되길 빈다는 말이 안부인 사회에 대항하는 시도이다. 애초에 각자의 몸은 엮일 수 있어도 하나로 모여 말해질 수 없다. 누락된 모습을 알아가야만 한다. 이시가키 섬은 질환에 대해 학습하고, 안전 지대를 갖춰 나가면서 그 증세를 산책이라는 상쾌한 일과로 이었다. 전희경은 이러한 실행이 몇몇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미담’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능해야 함을 시사했다.⁶ 그러려면 목도해야 한다. 말하자면 회복이라는 말이 은폐했던 것을. 내부적이지만 하지 않은 돌봄을. 구체적인 산발성을 끄집어내는 손윤원의 시도는, “밖의 바깥으로 나가고 싶습니까?”라는 대사를 연상시켰다.⁷

『천국대마경』에서 토키오가 뜬금없이 받는 이 질의는, 아이들이 “바깥”과 가까워질 명목이 된다. 천국은 거대한 벽으로 에워싸인 학교 시설이다. 천국은 “신분 차이도 성별 차이도 없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평등하게, 굶주림도 싸움도 없”앨 의도로 건설되었다.⁸ 아이들은 울창한 그곳에서 잘 어울렸다. 아이들은 성별을 모른 채로도 퀴어—성애적 욕망을 느끼고, 끌려가는 죽음을 기린다. 하지만 은닉은 다름을 들어낼 수 없다. 이것이 천국이 간과한 쟁점이다. 천국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결정권이 있는 광경도 검열했다. 상이하다는 진실은 아이들이 헤집는 만큼 또 감춰졌다. 결국 아이들은 설명되지 않는 수치심에 다다른다. 아이들은 ‘차이’라는 경우를 빼앗겼다는 것조차 어렵듯이 알았다.

〈흐르는 몸〉에서는 역할성을 간단히 뒤엎는다. 바닥을 오가는 네 명의 퍼포머를 보자. 단소는 불지 않고 두드리는 용도가 된다. 운지법 없이 리코더를 세계 뵙, 분다. 모루로 감아둔 악기에서는 소규모의 말만 들려온다. 이들은 각자의 앞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도, 소리는 유기적으로 붙고 떼어진다. 바닥에 늦게 합류한 한 명은 네 명과 신체적인 만남을 띄엄띄엄 잇는다. 그는 허리를 숙인 퍼포머 위에 앉는 식으로 움직임의 가로막는다. 그는 비좁은 곳에서 뿔뿔히 뿔나든다. 바닥에 자리 잡은 시설을 섞는다. 이미 행해졌던 동작을 모방한다. 다른 퍼포머들은 그것을 무던히 받는다. 이 무던함은 반복에서 왔을 테다. 〈흐르는 몸〉은 수시로 일어나는 끼어들음을 내보인다. 단선적이지 않은 갑작스러움은 혼자 대비할 수 없다. 내밀하다고 분류된 것들을 같이 들춰야 하는 이유이다.

⁵ 전희경, 「아프고, 늙고, 돌보는 것이 ‘평범한 삶’인 사회」, 『릿터』 35호, 2022년 4월, 25-26.

⁶ 전희경, 같은 곳, 26.

⁷ 이시구로 마사카즈, 『천국대마경 1권』(서울, 소미미디어, 2019), 18.

⁸ 이시구로 마사카즈, 『천국대마경 10권』(서울, 소미미디어, 2024), 32.

천국의 아이들은 공고하던 벽이 무너지면서 “밖의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나간 이후에도 아이들은 수시로 성가심을 만난다. 재해가 지나간 자리에서 알 수 없이 취약해지는 몸으로 살아가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⁹ 하지만 거리에 있는 몸과 이동을 참조하면서, 아이들은 서서히 부른다. 공통으로부터 퍼져나간다. 아이들은 복잡한 수치심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심상은 〈흐르는 몸〉에서 보았듯 내외의 뒤섞임으로 생긴다. 아이들의 대화는 긍정만을 담보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자신의 고유성을 간략히 줄일 수 없을 것이다. 비로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분열한다. 바닥이 있는 도처에서.

팔로마 아알라의 〈가라오케 리딩〉은 문을 닫아야 생기는 노래방의 해방감을 거절한다. 얇게 갈라지는 커튼은 서슴없는 입장을 유도한다. 화면에 있는 노래방 기기 표기, 되풀이 중인 자연 모션 그래픽은 친근한 폐쇄를 떠올리게 한다. 그 후면에는 리오 브라보/리오 그란데 강의 지도가 있다. 얇게 거치된 지형은 평평하지 않은 인상을 준다. 〈가라오케 리딩〉은 글로리아 안잘두아가 이중 언어로 작성한 시와 산문에서 기인했다. 안잘두아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걸쳐진 텍사스에서 생활했다. 전쟁 이후 멕시코계 시민들은 누적된 지역 정체성과 토지 등을 상실했으며, 소거는 일상이 되어갔다. 안잘두아 역시 계급으로 거칠게 나뉘는 공동체를 겪었고 상하를 허무는 것에 몰두했다. 또한 치카나(chicana)¹⁰이자 레즈비언으로서, 사회가 방임한 가부장제가 검열해온 여성의 몸과 욕망을—신화에서 오인 받은 여성, 여성에 대한 한정적인 수식 등—대동해 뒤틀었다. 안잘두아는 묻혀지지 않은 채 갈라지는 중인 정체성을 긍정하며 “네판틀라”(Nepantla)라는 개념을 전개했다. 네판틀라는 “여러 길 사이에서 찢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뜯어진 부분은 기우거나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닌 “개방”의 기점이 된다.¹¹ 안잘두아는 여러 방향에 걸쳐져 있는 것을 비관의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아가 “하이픈화된 이중적 정체성” 대신 “메스티자”(mestiza)라는 호칭을 제안했다.¹² 메스티자는 “인종/젠더/계급”을 건너 다니며, 통합될 수 없는 정체성을 의미한다.¹³ 안잘두아는 상세한 모호함으로 경직성에 대항하였다.

⁹ 천국의 아이들은 죽어서 괴물이 되며, 탈력감이나 피부에 생기는 반점 등이 초기 증상이다. 이것을 전달받지 못한 아이들은 몸을 통해 누설되는 과잉을 두려워했다. 과잉에는 사랑도 속한다.

¹⁰ 미국에서 거주하는 멕시코계 여성을 일컫는 말.

¹¹ 박미선, 「인식론적 액티비즘과 경계지대의 여성: 『경계시대/경계선』 이후 글로리아 안잘두아의 후기 사상」, 『여성학연구』 제25권 제1호(2015): 166-167.

¹² 노승희, 「글로리아 안잘두아—경계선 없는 경계지대를 살아가기」, 『여/성이론』 제11호(2004): 269.

¹³ 노승희, 같은 곳.

어젯밤에 아이들 몇이 말을 배었어
모두가 곤히 잠든 밤이었지
멕시코인들은 모여서 중얼댔지
개들 그링고잖아 보안관은 아무것도 안 할걸
개들 그링고잖아 보안관은 아무것도 안 할걸
예, 예, 예, 예, 예!

(…)

하지만 짐승을 죽인 건
그 정신이었어

(…)

아침이 오길 밤새도록 기도했을까?
아침이 오길?¹⁴

열기설기 있는 말. 거리를 다루는 말. 그것을 알아가는 일에는 유예가 필요하다. 멈춘 형식에서 벗어나려는 기의는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출은 시의성과 이어진다. 이연숙(리타)은 거주하는 동네의 “전단지”와 “거리 낙서”를 유심히 본다.¹⁵ 바깥에 있기에 잘 손상되는 나무껍질에는 의외로 “다급”한 외침이 많다. “생활 반경”은 외침의 인과가 되므로, 독자인 자신하고도 무관하지만은 않다.¹⁶ 수합되지 않는 동선과 나의 동선을 잠시 겹치는 것. 산발성을 홀로 둘 수 없는 마음은 어째서 필요할까?

그링고는 미국인을 가리키는 은어로, 침략의 역사가 담긴 말이다. 가사에 있는 의문들은 말의 다가움에서 시작한다. 사람들은 “위대한 말이 들판을 달려”오는 것을 본다. 말이 숨긴 칼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말이 강철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되물으며 의심을 거둔다. 머지않아 아이들이 말을 벤 사건이 일어난다. 유동적인 공격성에 대한 걱정은 신속히 마무리된다. 말의 상흔을 닦아주는 장면은 없다. 그링고가 방기해온 죽음이 연상되었기 때문일 테다. 중얼거림은 무덤과 이어진다. 다만, 안잘두아가 “복수적 정체성과 횡단”의 중요성을

¹⁴ 팔로마 아알라, 〈그링고〉, 2019,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3분 54초.

¹⁵ 이연숙(리타), 「[이연숙의 노상비평] 전단지와 낙서의 미스터리」, 『채널예스』, 2024년 8월 30일, <https://ch.yes24.com/Article/View/55933>.

¹⁶ 이연숙(리타), 같은 곳.

강조했듯, 피지배와 말에 대한 보호가 일원으로 붙지만은 않는다.¹⁷ 무엇보다 “짐승을 죽인 건 그 정신”이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손을 펴야 생기는 다음의 움켜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링고〉는 살아있다면 같이 새거나 놓쳤을 “아침”을 생각한다. “보안관”을 비판하는 일과 동물의 자리를 맡는 일은 아울러 간다. 아침은 손을 달리는 과정에서 또 올 것이다.

필자 소개

김해수는 생물 아닌 것에서 생물성을, 몸을 비켜나가는 것에서 몸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섞이는 바에 주목한다. 근래에는 동시대 문학과 애니메이션의 담론을 차용해 비평 및 기획을 생산하고 있다.

¹⁷ 박미선, 같은 곳, 172.